

農業土木과 地域活性化

趙 範 鎬

(農漁村振興公社 農漁村開發處長)



우리나라는 지난 20餘年間이 高度成長期를 통해 大都市中心의 工業化過程과 都市地域의 量的膨脹으로 어느地域은 成長과 發展이 急進적으로 이루어져 括目한 모습으로 轉換되었는가하면 어느地域은 定住環境이 惡化와 立地效率性的 低下를 가져와 落後地域으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地域間에 不均衡이 發生하게 되었다. 이는 根源的으로 地域間의 自然條件의 差異와 人間의 經濟活動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불가피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불가피한 現象이란 地域間에 經濟的 效率性を 確保하고 人間生活의 便宜性を 提高하며 地域間, 集團間에 善意的 競爭意識을 고취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投入한다는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國土空間上에서 그 成長發展의 격차가 深化되면 國家總資源의 總體的 效率性を 極大化시키지 못하며 空間上으로 過密, 過疎問題를 일으키고 地域間 集團間的 違和感으로 인하여 國民和合을 沮害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므로 政策的으로 깊은 고려를 할 必要가 있다.

現在 우리나라는 그동안 經濟發展過程에서 産業化와 都市化가 이루어지면서도 農水産業은 經營規模의 零細性和 生産基盤整備의 未洽등으로 農業勞動의 生産성이 他産業에 비하여 낮음으로써 農村의 人力은 老齡化 婦女化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農漁民은 都市民이나 他産業從事者에 비하여 낮은 소득으로 生活하고 있다. 특히 醫療, 教育등 文化·福祉施設과 道路, 上下水道등 生活環境面에서 都市에 비하여 落後된 실정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經濟位相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가트(GATT) 協定에 의한 開發途上國을 卒業하여 農產物輸入制限 名分을 喪失함에 따라 앞으로 8年以内に 農產物의 수입을 大幅開放해야 될 시점에서 와 있는 데다가 農產物 交易의 完全自由化와 農產物의 生産 및 交易에 영향을 주는 모든 形態의 補助金 즉 價格, 所得, 流通, 生産要素, 投資 및 利子에 대한 補助金を 減縮내지 撤廢로 할 수 밖에 없는 우르콰이 協商이 展開되고 있어 農漁村의 發展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어 都農間的 隔差는 더욱 深化될 조짐이다.

이러한 不利한 條件에 있는 農漁村地域의 發展을 위하여는 農村을 農產物生産基地로서의 對內外的인 競爭力의 提高라는 측면에서 우리農漁民의 所得을 增大시키고 農產物의 安定的인 供給을 유도함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農漁村을 우리國民이 살고 있는 生活空間이라는 概念下에 投資와 開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農漁村은 우리나라 國土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우리國民의 生活의 場으로서 不均衡의 成長發展이 均衡의 地方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地域社會發展에 沮害要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農業土木分野는 農地基盤造成事業의 從來의 方式과 생각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對應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地域社會 發展과 地域經濟에 寄與

農地改良施設은 農業의 生産性 向上을 目的으로하는 灌溉, 排水, 水資源確保, 輸送, 防災等 本來의 機能外에도 물이 있으므로 사람의 마음은 豐饒롭게 하는 親水機能이나 景觀을 좋게하는 機能, 國土保全과 自然環境의 保全등 우리 生活에 밀접한 機能도 갖고 있다. 이러한 農地 改良施設의 潛在的 機能을 적극적으로 實現하게 한다면 農漁村地域의 環境改善에 多大한 效果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또한 農道の 整備는 農産物의 高速出荷가 可能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都市 近郊에서만 가능하던 高附加價値 農産物의 生産이 中山間地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地域間的 季節差異를 이용하는 農産物栽培形能도 轉換될 것이며 多種, 多樣한 農法이 開發될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의 農地基盤整備는 더욱 完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農地의 汎用化, 用排水 基準等의 上向調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水利用의 體系化

앞으로 農漁村에 道路網의 擴充과 自動車保有台數의 增加로 農漁村社會도 不遠間 非農漁家가 많이 居住하는 混住社會로 發展하여 都市의 生活를 營爲하게 됨에 따라 水使用의 增加와 各種生活下水가 增加하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인하여 農漁村河川의 汚染問題도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農村의 簡易上水道는 主로 河川伏流水를 主水源으로 하고 있으므로 衛生的인 生活用水對策에도 우리의 關心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農漁村의 社會發展, 産業化 環境保全, 農業用水等의 農漁村의 用水는 現水準보다 2~3倍 增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農漁村用水에 대한 開發, 保全 및 管理를 體系的으로 추진할 수 있는 制度의 조속한 定着이 必要하다.

3. 生活環境改善

그동안 都市에 비하면 현저하게 疎外되었던 農漁村生活環境의 누적된 隔差는 農村人口 流出의 原因이 되고 있으며 農民들이 將來에 대한 비전이나 生活에 대한 보람 등의 矜待를 갖지 못하는 등 심각한 問題點을 안고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問題意識에서 볼때 農漁村住民들의 安定된 住居와 生産活動을 保障하기 위해 村落 및 定住生活圈을 合理的으로 開發해나감으로서 農民은 물론 都市人도 農村에서 살고자 할 수 있도록 하여 都市의 過密化에 따른 여러가지 社會問題를 해결하고 地域開發을 유도하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生活環境改善은 快適한 住居空間, 能率的인 生産空間, 便利한 生活空間이 되도록 하는 것의 基本目標로 해야겠다. 그러나 農村의 都市化 産業化가 地域活性化의 促進要素이긴 하지만 農村地域의 基幹産業인 農業과 調和를 이루는 形態로 推進되어야 하며 農漁村의 廣闊한 綠地資源과 豊富한 水面과 接한 空間을 갖고 있어 이는 農業의 場임과 同時에 農村의 景觀을 創出하는 重要한 資源이므로 綠地資源과 水邊資源, 保全 이 連繫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地域 傳統文化施設을 改修 保全하여 地域特性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여 地域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地域住民들의 合議에 바탕을 두고 關聯事業과 連繫施行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함으로서 農業土木事業이 單純한 農村의 生産性向上이나 便利性的 確保만이 아니라 地域住民生活에 安定感과 地域에 대한 愛着心도 涵養하자는 效果를 나타내므로 地域社會 活性化에 커다란 役割을 하는 사업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지금까지 農業土木分野는 主穀自給이라는 時代的 要請에 따라 農業生産基盤擴充을 착실하게 遂行하르로서 主穀의 自給目標을 達成하였다는 事實은 우리 農業土木界의 큰 成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쌀의 自給이 達成된 現時點에서 農業生産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작다는 理由로 農業自體가 소외당하고 農村地域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늦추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農村地域은 國民에게 食糧을 供給하는 生産의 場일 뿐만아니라 이 地域에 사는 住民의 生活의 場으로서의 積極적인 開發이 必要한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農村地域은 自然의 生態系와 調和를 이루는 生産活動을 통하여 自然環境이나 國土의 保全管理라는 側面에서의 역할을 重視해야 되며 한편으로 國民들의 價値觀의 變化에 따라 푸르른 綠地空間의 休養地를 윈하고있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農業土木分野는 國土의 大部分을 頂하고 있는 農村地域에 대한 새로운 視覺的 開發計劃 수립과 이의 施行에 臨하는 積極적인 意識의 轉換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農村地域의 活性化를 위하여 地域特性에 알맞는 各種 機能을 잘 調和시켜 開發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地域活性化의 길일 것이다.

특히 UR協商이 일괄 타결될 경우 輸入開放은 물론 農産物의 生産交易에 影響을 주는 모든 政府 直接補助를 撤廢토록 規定하고 있어 國內補助의 漸進的인 減縮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따라 政府는 他産業에 比하여 競爭力이 약한 農業에 대한 間接投資가 必然的으로 增大될 것이다. 즉 이는 곧 農業基盤인 農地에 대한 現代化 施設 改造를 主軸으로 하여 農漁村用水의 合理的인 利用, 農村環境改善等の 事業이 積極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